

담수생물을 찾아서

다양한 담수생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물 속에 사는 거미를 아시나요?

‘거미’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풀숲이나 나무 위에 얼기설기 걸린 거미줄에 대롱 대롱 매달린 거미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보통 땅위나 땅속에서 사는 거미를 생각하기 쉬우나, 이번 호에서는 물속에서 거의 모든 생애를 보내는 독특한 생활사를 가진 물거미 *Argyroneta aquatica*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거미는 절지동물문 거미강 물거미과에 속하는 분류군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거미 속에 1종만 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거미가 서식하고 있는 습지 일대는 천연기념물 제412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한 평생 물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신기한데, 물거미는 아주 독특한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그것은 물 속에서 공기주머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거미는 수면 위로 올라와 콩무늬를 수면 밖으로 1-2초간 내민 다음, 공기를 모아 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배 부분에 커다란 공기방울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기주머니 안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 거미줄을 주머니 안쪽에 쏘아 붙여가며 견고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물 속 수초 사이에 거미줄을 친 다음 공기주머니를 고정시켜 놓기도 합니다.

과연 물거미는 공기주머니를 열심히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공기주머니는 실잠자리애벌레나 장구벌레 등 물거미가 포획한 먹이를 먹는 식사 공간이 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침터로, 알을 낳는 산란 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독특하게 살아가는 물거미를 우리나라 한 곳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물거미와 같이 서식지가 제한되고 좁은 지역에 사는 생물은 넓은 지역에 사는 생물보다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도 물거미와 같은 소중한 희귀한 생물자원이 더 이상 생태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글·사진 교육부 김해란



1 물거미가 만든 공기주머니

2 물속에서 유영하는 물거미



3 은백색의 털이 나있는 물거미



3 물거미 서식지 전경

4 물거미 서식지 조사 사진